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보아스와 롯

성경: 롯 1:16-17, 2:1-3, 13-16, 3:9, 12, 15, 4:1-17, 21-22

I. 이스라엘의 역사 중 여호수아기부터 롯기까지의 부분에서 그 시작과 끝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드러진 두 인물이 있다. 이 두 인물은 바로 한 인격의 두 방면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보아스이다 — 수 1:1, 롯 4:21-22.

- A. 시작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들 안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호수아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좋은 땅 안으로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좋은 땅을 차지하셨으며, 그 땅을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할당해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좋은 땅을 얻으셨으며, 결국 그분께서 우리가 누리기 위한 좋은 땅이시다.
- B. 최종적으로 보아스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II. 롯기에서 보아스는 다음의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A. 사람으로서, 부유하며 주는 데에 관대한(롯 2:1, 14-16, 3:15) 보아스는 측량할 수 없는 신성한 풍성을 소유하시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넘치는 공급으로 돌아보시는 그리스도(엡 3:8, 눅 10:33-35, 빌 1:19)의 예표이다.
- B. 친족으로서(롯 2:3, 3:9, 12), 잃어버린 말론의 재산을 되찾아 주고 죽은 말론의 과부인 롯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필요한 상속자들을 낳은(롯 4:9-10, 13) 보아스는 교회를 구축하시고 배필로 삼으시어 자신을 증가시키시는 그리스도(엡 5:23-32, 요 3:29-30)의 예표이다.
- C. 롯기에 따르면, 보아스는 롯을 구축하였고 그녀의 장자권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주목할 만한 선조가 되었다 — 롯 4:1-17, 21-22, 마 1:5-6.
 - 1. 형제이자 보아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의 장자권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리스도의 장자권도 돌아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누림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들의 누림도 돌아보아야 한다 — 엡 3:2, 벧전 4:10-11, 마 24:45-47.
 - 2. 교회생활 안에 있는 몇몇 사랑스러운 이들이 롯처럼 되어 그들의 장자권의 누림,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누림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생활 안에서 그러한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다시 이끌어 오는 많은 보아스들을 얻는 것이다.

룻기

메시지 11 (계속)

3. 룻기는 우리에게 룻에게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또 다른 친족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장자권만을 주의했다.
 - a. 어떤 형제들은 교회생활 안에서 가난한 ‘룻’과 같은 이들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누림과 관련하여 이기적이다 — 겔 34:2-23.
 - b. 참된 보아스이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어떤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여 그러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 안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누림,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큰 누림을 얻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들의 누림을 돌아보아야 한다 — 잠 11:25, 행 20:35, 벘전 5:1-4.
- D. 보아스처럼 된 이들은 교회생활 안에서 기둥들이다(성전의 기둥들 중 하나는 ‘보아스’라고 불리었다—왕상 7:21). 성경에서 기둥은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가운데 변화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표징, 곧 증거이다 — 창 28:22상, 왕상 7:15-22, 갈 2:9, 딤펢전 3:15, 계 3:12, 롬 12:2, 엡 4:11-12.
 1. 교회생활 안에서 기둥인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눅) 아래 있으면서, 자신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직 죽고 장사되기에만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 시 51:5, 출 4:1-9, 롬 7:18, 마 3:16-17.
 - a.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밖에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 고전 15:10, 갈 2:20, 벘전 5:5-7.
 - b. 믿는 이들 가운데 분열과 열매 없음, 이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눅, 곧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것이 전혀 없고, 반대로 교만과 자기 자랑, 자기변호, 자기 정당화, 자화자찬, 자기변명, 스스로 의롭다 함,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찾는 대신에 비난하고 규제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 마 16:24, 눅 9:54-55.
 - c.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눅의 사람(겔 40:3)으로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의 비범한 사랑, 끝없는 관용,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최고의 순수함, 지고한 거룩함과 의, 우리의 빛남과 울바름이 되실 것이다 — 빌 4:5-8.
 2. 성전에 있는 기둥들의 기둥머리에는 ‘(격자 울타리와 같은)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기둥인 이들이 그 안에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1 (계속)

서 살며 책임을 지고 있는 복잡하고 얽혀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 — 왕상 7:17, 고후 1:12, 4:7-8.

3. 기둥머리 꼭대기에는 백합화들과 석류들이 있었다 — 왕상 7:18-20.
 - a. 백합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 곧 우리의 어머함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머함에 의해 사는 생활을 상징한다. 늦은 ‘내가 아니요’를 의미하고, 백합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아 2:1-2, 마 6:28, 30, 고후 5:4, 갈 2:20.
 - b. 기둥머리의 고리들 위에 둘러져 있는 석류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표현을 상징한다 — 빌 1:19-21상, 엡 1:22-23, 3:19.
 - c. 그물망에 의해 십자가로 제해지고 사슬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여,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할 수 있다.

III. 이렇게 밝고 향기로운 이야기에서 늦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교회를 예표한다.

- A. 늦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속한 여자이자 타락한 사람인 모압 족속에 속한 여자(죄인)로서, 이 두 방면을 가진 옛사람이 되었는데, 이러한 늦은 구원받기 전의 교회의 예표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자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우리의 옛사람’이었다 — 롬 6:6.
- B. 남편을 여윈 과부 늦은 보아스에 의해 구속받았다. 보아스는 늦의 죽은 남편이 진 빚을 청산하여 죽은 남편의 재산에 대한 그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룻 4:9-10). 이러한 면에서 늦은 교회의 예표이다. 교회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남편이며(롬 7:4상, 6:6),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았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옛사람의 죄를 청산하시어(요 1:29),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타고난 사람이 타락 때문에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다(창 1:26, 사 54:5).
- C. 늦은 보아스에 의해 구속받은 이후에 그의 새 아내가 되었다(룻 4:13). 이러한 면에서 늦은 교회의 예표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타고난 사람이 거듭남으로써(요 3:6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었다(요 3:29상, 롬 7:4).
- D.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를 선택하고(룻 1:16-17) 보아스와 연결된 늦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고후 1:2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에 참여한(엡 3:6) 이방 죄인들의 예표이다.

룻기

메시지 11 (계속)

IV.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와 (자신의 옛사람 곧 자신의 남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교회를 예표하는) 룻이 묘사하는 그림에 관해 말한다.

- A.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의 원래 위치는 아내의 위치였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아내인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취해야 한다.
- B. 사람은 타락했을 때 또 다른 위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옛사람(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를 통해 타락하게 된 우리 존재 자체)이 스스로 취한 위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아내였지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그 자신을 머리 곧 남편이 되게 했다.
- C.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롬 6:6)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7:2-4) 그리스도, 곧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인 새 남편에게 연결된다.
- D.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
 - 1. 우리에게는 타락한 옛사람이라는 옛 신분이 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내로서의 본래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남편과 머리로서 독단적인 위치를 취했다.
 - 2. 우리는 거듭난 새사람이라는 새 신분이 있다. 우리는 본래의 합당한 위치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참된 아내(사 54:5, 고후 11:2-3)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머리로 삼는다.
- E.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갈 2:20, 롬 6:6)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옛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우리에게는 합당한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만 있다. 합당한 아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더 이상 옛사람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더 이상 옛사람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F. 로마서 7장 4절에서 바울은 장례식과 결혼식을 함께 두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장사 되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결혼하였다. 옛 신분에 따르면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새 신분에 따라 다른 이와 결혼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 신분에 따라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과 결혼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 G. 우리의 옛사람인 우리의 옛 남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1 (계속)

를 맺기 위한 것이다'(롬 7:4). 이러한 연결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 H. 거듭난 새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넘쳐흐름, 곧 생명의 열매로 맺는다. 이것은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전에 죽음을 열매로 맺었던 것(롬 7:5)과 대조를 이룬다.
- I.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었다. 이것은 '그 영께서 ... 우리의 영과 함께'(롬 8:16) '한 영'(고전 6:17)으로 합해지신 것이다.
 - 1.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그 영과 합해진 이 영으로 돌이키고 이 영에 두어야 한다 — 롬 8:6하.
 - 2. 우리는 또한 그 영과 합해진 이 영을 따라 살고 행해야 한다 — 롬 8:4.
 - 3. 이처럼 우리가 그 영과 합해진 이 영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 내어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 엡 1:23, 3:21, 고전 10:31, 벵전 4:11, 계 21:10-11.